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10주년 맞는 제주추사관

추사 유배 180주년... 국제 교류·다크 투어 활용해야

1984년 추사유물전시관 전신 실제 공간의 역사 30년 넘어 '세한도' 남긴 유배인물 기려 '유형의 섬' 아픈 역사 안은 다크 투어리즘 콘텐츠 주목

5월이면 개관 10주년을 맞는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제주추사관'.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예고한 대로라면 5월 12일부터 두 달에 걸쳐 '추사 김정희와 청조문인의 대화' 특별 기획전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는 추사 김정희(1786~1856) 제주 유배 18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를 더해 기념 행사가 준비되고 있지만 이 기회에 제주추사관을 낳은 제주 예술인들을 기리고 한·중·일 국제교류의 공통 분모로 활용하는 등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 예술인 덕에 지금의 추사관=제주추사관의 역사는 10주년보다 더 오래다. 유허비만 세워졌던 추사유배지(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에 초가를 복원하고 1984년 제주추사관의



국가 사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대정을 안성리에 조성된 제주추사관.

전신인 추사유물전시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제주예총(당시 예총 제주도지부)을 중심으로 제주 예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제주예총은 유배지 복원을 위한 긴급마련전을 열었다. 김기창 김응현 김충현 변시지 서세옥 현중화 등 도내외 예술가들이 그 취지에 동참하며 작품을 냈고 판매 수익으로 2860만원의 기금을 모았다. 이를 종잣돈으로 제주도와 남제주군이 예산을 더해 유배지 초가와 추사를 생각하는 공간이 잇따라 들어섰다. 추사유물전시관

은 2007년 10월 추사유배지가 국가문화재로 승격되고 그 격에 맞게 재건립이 추진되면서 2010년 제주추사관으로 새로 태어났다.

도내 문화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방문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10주년을 넘어 제주 예술인들의 노고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제주추사관 측은 "홈페이지나 안내책자엔 추사유물전시관에 얹힌 사연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는데 전시실에도 사진 자료 등으로 추사관 탄생의 배

경을 보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의 성지' 한·중·일 만남 자원=추사를 주제로 조성된 공간은 제주 말고 또 있다. 고택이 있는 충남 예산의 추사기념관. 말년을 보낸 경기도 과천의 추사박물관이 그곳이다. 제주의 추사유물전시관은 그보다 앞서 지어졌다. 추사의 명작인 '세한도'와 제주의 인연이 일찍이 조명됐고 제주 유배문화의 대표 인물로 추사가 자리잡은 영향이 크다.

도내 한 서예가는 "국내 서단에서는 제주를 '서예의 성지'로 여기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제주도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일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동아시아 문화 교류 등 추사 관련 콘텐츠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유배문화까지 포함해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정 이유에 제시된 항목유역지, 이재수의 난, 항일운동, 제주4·3사건, 한국전쟁 유적 말고도 유배문화 역시 '유형의 섬'이었던 제주의 아픈 역사를 일깨우기 때문이다. 전선희기자

외국어 표현 이해 세대별 차이 심각

3500개 중 "60% 이상 안다" 조사 대상의 30.8%에 그쳐 70세 이상은 6.9%만 이해

드라이브 스루, 팬데믹, 코호트 격리, 비말, 진단 키트... 코로나19 여파로 근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외국어 표현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가 외국어 표현 3500개에 대해 일반 국민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30.8%(108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14~79세 1만1074명 조사 결과 외국어 표현 3500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전체 평균은 61.8점이었다. 60대 이하는 66.9점이었으나 70세 이상은 28.4점으로 세대 간 외국어 표현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컸다.

3500개 외국어 표현 중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1080개였다. 세대별로는 60대 이하에서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1378개(39.4%)인 것에 비해 70세 이상 응답자의 60% 이상이 알고있는

단어는 242개(6.9%)뿐이었다.

QR코드, 팝업창, 키워드, 모바일앱, 패스워드, 스쿨존, 노키즈존 등 346개 표현은 60대 이하가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한 비율과 70세 이상이 응답한 비율이 단어마다 50% 이상 차이가 났다. 이러한 이해도 격차는 특히 정보통신 관련 단어에서 두드러졌다. 루저, 리워드, 스트리밍, 리스펙트, 스컬, 메디컬, 3D 등 1245개 표현은 70세 이상 응답자의 10% 이하만이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했다.

현재 문제부와 국립국어원은 외국어 새말이 많이 들어와 신문행렬이 높아지고 소통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보급(publang.korean.go.kr)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자주 쓰이는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승차 진료소(승차 검진, 차량 이동형 진료)'로 바꾸는 등 우리말 대체어를 마련했다. 문제부는 23일 "일부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통일성 있고 편하다는 비판도 있으나 코로나19와 관련 어려운 외국어가 계속해서 쓰인다면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예총 회원 코로나19 여파 15건 행사 중지 2억 피해

제주예총 회원 단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입은 피해액이 2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는 지난 18일 발표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9~12일 한국예총 회원협회 10개 단체, 제주 등 연합회·지회 153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취소·연기된 현장 예술행사는 전국적으로 2500여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총 523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 지역은 제주예총 회원들을 중심으로 1월 이후 최근까지 취소되거나 연기된 문화예술행사가 15건이라고 했다. 피해액 추정 규모는 2억5000만원이다. 전선희기자

제주 개신교회 절반 여전히 현장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제주도 22일 현황 파악 결과 420곳 중 222곳만 취소 결정도 "방역지침 준수 지속 확인"

제주지역 개신교회 절반 가량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여전히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 22일 기준으로 현장 예배 상황을 집계한 결과다.

지난 일요일 22일은 정부가 초·중·고교 개학 전 보름 동안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달라는 답화문을 내놓은 직후다. 국무총리는 해당 답화문에서 종교시설 등에 대한 운영중단을 강력하

게 권고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파악한 개신교회 420곳 중에서 이날 제주시 156곳, 서귀포시 66곳 등 222곳만 예배를 취소했다. 절반에 가까운 198곳은 여전히 현장 예배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23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제주도는 "3월 첫 주말인 1일과 비교 시 57개소가 추가로 예배 중지"에 나선 것으로 매 주말 현장 조사와 비교해도 가장 많이 동참한 수치"라며 "부득이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대부분 마스크 착용, 예배 간격 1m 이상 간격 유지, 교인 외 출입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었고 참석 규모는 평상시의 30~40%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확인 결과 교인 수 10인 미만 소규모 교회는 영상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영상예배가 불가능하고 온라인 접속이 되지 않는 휴대폰을 가진 읍면 지역 어르신들이 교회를 방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배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앞으로 행정시, 읍면동과 함께 합동 점검지원반을 운영해 밀집 집회 자체를 안내하고 현장 예배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교회 입장 전 증상 체크, 유증상 교인 출입 금지 조치, 예배참석자와 목회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출입 시 소독, 교회 내 식사 제공하지 않기, 시설 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지역사회 감염 역제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국립제주박물관 휴관 연장

국립제주박물관이 4월 5일까지 휴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제주박물관 등 소속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휴관 기간을 추가 2주간(3월 23~4월 5일) 연장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도 2주간(3월 23~4월 5일) 추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폭낭 청소년 영화제작 교실

서귀포시는 문화예술학교 '폭낭 청소년 영화제작 교실' 참여 학교를 모집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올해 문화예술 학교 프로그램 폭낭 청소년 영화제작 교실은 4월부터 7월까지 총 9차시로 운영된다. 수업 내용은 영화 스토리 만들기, 기획, 촬영교육, 편집 등 기초 영상제작 이론부터 실제 촬영과 작품 제작 과정으로 미디어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서귀포시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 3개교·학생 총 4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064)760-3841.

제남도서관 교육일 변경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제남도서관이 독서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 일정을 변경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임시 휴관 기간을 연장한 데 따른 조치다.

제남도서관은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임시 휴관 중이다. 이에 4월 4일 전에 예정됐던 '토요시네마', '위드시네마' 등 영화 상영과 '책이랑 놀자', '굴항기 독서교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일부 일정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백세건강교실', '서각 교실', '우쿨렐레 교실' 등은 개강을 연기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남도서관(http://www.jnlib.go.kr/jnlib)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지동시스템(조색기) 구비

강력접착방수제

특징: 통기성 (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 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일절 (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한번 칠하면 100%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

특징: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용도: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세 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워터스틸라 12차, 미건빌라

자외선에 싹(부식)아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100% 스텐연통 설치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조천면 대흘리 가정집 설치

초가점화 30초내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드라이비트벽: 성지요양원

타일면: 이도아구점빌딩

★ 주요생산물 : 녹/회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점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줄눈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바랍니다.**